

복제인간의 윤리파장

이제 2000년이 되었다. 돌아보면 지난 세기 마지막 한세대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로 무척이나 노력했다. 또 자연과학의 체계화된 응용은 전 세계의 인류를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했다. 19세기 이후 인류에게 커다란 시해를 준 변화가 증기기관의 발명을 시작으로 거대한 동력의 출현, 전기의 보급으로 일상생활의 한차원 넘는 곳으로 비약,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시작된 컴퓨터가 온 세상 사람의 삶을 다시금 새 차원으로 이끌고 몰아가고 있다.

지난 여름 로마 교황청에서 세계 가톨릭 '의료기관의 현안 대책'에 관한 회의를 마치고 서울로 오는 도중 여승무원에게 부탁하여 조종실에 들어가서 기장으로부터 비행에 관한 모든 설명을 들으며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무게가 2백톤이 넘는 거대한 점보 제트기가 3백여명의 승객과 화물을 싣고 넓은 창공을 시속 940km의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다. 한칸 정도의 좁은 공간인 조종실에서 두명의 조종사가 사면에 설치된 계기들을 조작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정된 항로를 가고 있다. 기장의 이야기로는 이착륙의 15분 정도의 시간 외에 모든 것은 컴퓨터의 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

된다고 한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20세기 말의 과학의 극치를 이룬 경이로운 인가. 나는 한동안 정신없이 창 앞에 펼쳐진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며 낮을 잃고 있었다. 레이더를 보고있던 부조종사가 2분30초 후에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여객기를 볼 것이라고 말하더니 과연 정확히 2분30초 후에 A300여객기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갔다.

인간생명의 존엄성 제기

현대의 과학지식은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제공한 놀라운 혁신들로 이어져 왔다. 평균 수명은 눈에 띄게 길어졌고 많은 질병들의 치료법이 발견되었다. 농업 산출량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늘어나고 있는 인구의 필요를 충족시키고도 남는다. 또 우주와 생명의 기원, 기능 그리고 진화에 관한 과학지식을 끊임없이 확장시킴으로써 인류는 자신의 행위와 전망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개념적, 실천적 접근을 갖게 되었다.

의료와 생명공학에 관하여 살펴보면 과학적으로 체계화된 의료기술은 많은 질병을 효과적으로 퇴치했고, 첨단 기기를 사용하여 진단과 치료의 기술을 고도로 발전시켰다. 2000년에 발생할 지도 모를 Y2K의 첨단의료장비가 무려 2백종이 넘는다고 하니 더욱 놀랄

일이다. 한편 이러한 무한한 발전의 결과로 야기되는 윤리적인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인간의 유전공학(이것은 1970년대 후반기부터 첨단기술의 하나로 채택되어 치열한 개발경쟁에 돌입했고 세계 특허가 1980년대에 이미 1천건에 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재 각 연구소는 상당히 많은 주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막대한 연구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과 그 응용기술의 발전으로 불구아의 태내 진단, 성 감별, 인공수정, 체외수정, 수정란 냉동 및 매매, 복제인간,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 교환 등 이에 따른 복잡한 윤리문제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인공신장과 기타 만성질환의 치료를 위한 기술발전에서 오는 인간생명의 연장문제와 식물상태의 인간에 대한 처리문제 등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관계되는 윤리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 뇌사설에 의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안락사의 찬반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고도로 과학화된 의학은 인간생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연과학의 원리를 응용하여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생명을 조작하여 생명에 대한 그의 권력을 무한정 휘두르고 있다. 즉 과학적 지식을 지식으

인간의 유전공학과 그 응용기술의 발전은

인공수정, 수정란 냉동판매, 인간복제,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 교환 등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관계되는 윤리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뉴스위크」지에는 ‘예쁜 모델의 난자를 팝니다’와 ‘신장을 팔지않고는 살 방법이 없었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은 인간복제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더욱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金重浩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실용화시키고 있다.

1999년 11월 10일 주간지 「뉴스위크」에는 ‘예쁜 모델의 난자를 팝니다’와 ‘신장을 팔지 않은 살 방법이 없었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1950년 이후 인간 생식공학의 기술은 인공수정을 통하여 불임부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자녀를 갖는 기쁨을 주었고, 1978년 영국의 올드햄에서 세계 최초로 체외수정을 이루고 최초의 심장식수술 같은 과학의 개가도 있었다. 그러한 결과로 정자은행, 난자판매, 수정자은행 같은 조직이 생겨나 생명의 경시와 비인간화, 인간의 생명, 장기의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7년 스코틀랜드의 로슬린연구소의 윌렛박사 연구팀이 복제 양 돌리를 탄생시켰다. 이 경우 생식세포가 아닌 어미 양의 체세포를 가지고 세포핵 이식기법을 사용하여 새끼 양을 복제함으로써 1세대의 유전자와 똑같은 2세대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대단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며 곧 인간의 생식에도 응용되어 인간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미래에 등장할 인간복제(human cloning)를 찬성하는 편에 있는 사람

들은 이것은 선호공리주의(preference utilitarianism)를 극대화시키는 행위를 선택하는 일이고, 남·녀 성의 비율이 이상적으로 조화된 사회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며, 복제될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최근 매스컴에서는 자주 ‘유전자 조작’, ‘생명공학’의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농산물에 응용하여 품질좋은 생산품을 보급하는 한편 인간에게 암 유발, 위장장애, 면역체계 손상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라는 인체의 모든 유전자를 해독하려는 엄청난 연구계획을 추진중이다.

‘슈퍼 베이비’ 등장 가능성

2003년까지 이 계획이 완수되면 인체에 선천적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판별 조작하여 치료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또 부모는 자녀의 성별, 눈동자 색깔, 목소리, 키, 체형들을 유전자 특성 목록을 보고 고를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슈퍼 베이비(Super Baby)’를 갖게 되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슈퍼유전자 계급사회가 등장할 가능성이 명확하다. 이런 모든 견잡을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사려깊은 학자들과 단체는 올바른 방향으

로 이끌어가기 위한 운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1993년 UNESCO는 국제생명윤리위원회를 만들어 1998년 ‘인간게놈과 인권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1999년 6월에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모여 ‘과학과 과학적 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지식을 위한 과학·진보를 위한 지식, 평화를 위한 과학, 발전을 위한 과학, 사회 속의 과학과 사회를 위한 과학으로 요약된다. 이것은 국제적, 지역적 조직들 및 다수 국가들이 ‘과학 선언’을 지키고 후속조치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준비하고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과 그 응용기술의 결과, 그리고 긍정적·부정적인 면을 체험하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또 살아야 한다.

철학자, 윤리학자 그리고 인간 삶의 한계와 미래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깊은 우려와 함께 종교적인 사색에 잠기게 된다.

200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윤리적·종교적인 표현이 아닐까? ①7